
第13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2年3月19日(火) 午前10時 開式

第13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 議事擔當官 盧秀晚)

(10시 24분 개식)

○議事擔當官 盧秀晚; 지금부터 제1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민연식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副議長 閔鍊植; 존경하는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달에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한 뒤 약 20일만에 힘찬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3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개나리, 진달래 봄꽃이 일주일 빨리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 경제가 빠른 봄기운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되는 상스러운 조짐이라 생각되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감동을 준 장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경의선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경의선 침묵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의 끊어진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세계속에 통일 한반도의 기상이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중동지역에는 평화가 정착되기는커녕 종교와 이념 차이로 포화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날로 격렬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유혈분쟁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역간, 국가간 여러 분쟁들이 종식되어 피부와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는 지구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머지 않아 춘분이 다가

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특히 이 시기는 1년 중 춥지도 덥지도 않는 따스한 계절로서 집행부와 우리 시의원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행락철에 산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과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부족국가로서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가 시급하며 물부족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용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물절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물 자원과 먹는 물의 보전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물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서울시가 물절약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물절약통장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 제도가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천만 시민 모두가 발벗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회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의 마무리를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의 D-100일 시민대행진을 통해 월드컵분조성을 더욱 확산시켰으며, 이때 설치된 시청 앞의 축구공 형태의 구조물은 우리 천만 시민들에게 벌써부터 성공예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1일 D-60일 기념시민 대축제, 밀레니엄공원 개원행사를 실속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상암경기장 건설예산 절약분으로 조성된 세계 최대 수중월드컵분수대에서 202m

높이의 축하 물줄기가 푸른 서울 하늘을 시원하게 뻗어 월드컵 개막전야제도 전례 없는 장엄한 광경이 연출되리라 확신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회도 더욱 합심하여 시정의 에너지를 총 결집시키는 한편 시민 참여의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선거를 앞두고 물가걱정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4년 여만에 마을버스 요금이 소폭 올라간바, 이번을 계기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특단의 대책을 더욱 세밀하게 강구하여 친절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조금 못 먹더라도 자식만큼은 더 좋은 학교에 보내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 여건에 놓여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 자녀들을 전학시키기 위해 시교육청 정문앞에 며칠부터 줄을 서서 자기 자녀만큼은 특정교육을 꼭 받게 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열의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상을 통해 시 교육당국이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우리 어른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학부모, 교사,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충분히 발전된 제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줄서지 않아도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은 전학 줄서기와 같은

심각한 교육붕괴현상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적 경쟁원칙이 지켜지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도록 시 교육당국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 시의원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 개최되는 금번 임시회는 각종 현안 주요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으로 문제 제기 또는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盧秀晚;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4분 폐식)